

일본해에 관한 호칭 문제(러시아에서의 조사):개요

일본 외무성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, 러시아 국내 도서관 및 고문서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는 17세기부터 19세기의 지도들이, 일본해 해역 명칭을 어떻게 표기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.

조사한 고지도 51점 중에서 일본해 해역에 관한 언급이 있는 지도는 40점이었다. 그 중 72.5%에 해당하는 29점에 [일본해]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또한, 일본의 쇄국 정책 시대에 발행된 지도 27점 중에서 63%에 해당하는 17점에 [일본해]라고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 지금까지 미국, 영국, 프랑스에서 실시한 조사에 이어서 본 조사를 통해서, 일본해의 호칭이 일본의 쇄국 정책 하에서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19세기 초엽부터 서구에 정착되어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.

한편, 한국 측은 “일본해의 명칭이 지배적으로 된 것은 20세기 전반의 일본 제국주의, 식민지주의의 결과이다”라고 주장하고 있다. 한국 측이 독자적으로 실시한 고지도 조사를 근거로 들고 있다. 한국 측은 러시아 국립 도서관, 러시아 국립 고문서 보관소 및 러시아 국립 해군성 문서 보관소에 소장된 18세기에서 19세기까지 제작된 고지도 19점을 조사하였다. 그 결과, 52.6%에 해당되는 10점이 [한국해] [동해] 등, 한국과 관련된 명칭을 표기하고 있었고, [일본해]라고 표기한 고지도는 15.8%에 해당하는 3점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.